

“아름다운 서화 작품 감상해요”

국립전주박물관, 서화 문화재 교체 전시... 이정직·채용신·박호병·조중태·이형록 작품 전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이 서화 문화재를 교체 전시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석정 이정직의 '행서 8폭 병풍'을 비롯해 석지 채용신의 '안재호 초상', 추당 박호병 '산수도 10폭 병풍', 우당 조중태의 '화조도 8폭 병풍', 전 이형록 필 '책가도 병풍' 등이다.

석정 이정직은 조선 말기에 활동한 전북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서화가이며, 칸트와 베이컨 철학을 조선에 처음으로 소개한 철학자이기도 하다. 이정직은 김제에 거주하며 후학을 양성했으며, 전북의 예술을 한 층 높이 끌어올린 인물이다. 이번 전시에 공개된 '행서 8폭 병풍'은 이아(爾雅), 석명(釋名), 예기(禮記)와 같은 고서에서 언급된 효에 관한 내용을 모아 둔 것으로 1892년 9월에 제작됐다.



추당 박호병 '산수도 10폭 병풍'



우당 조중태 '화조도 8폭 병풍'

석지 채용신은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걸쳐 활동한 화가로 1906년 관직을 마친 후 전주로 낙향해 인물의 초상을 그렸다. 1910년을 전후해 그는 우국지사 및 의병활동을 했던 인물들의 초상을 남기기도 했다. 그가 그린 '안재호 초상'은 1912년 안재호의 아들 안요목에 의해 안재호 사후에 주문 제작된 작품이다.

한편, 이번 교체 전시에는 전북 서화계의 또 다른 사제지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두 작품이 선보여 시선을 끈다. 바로 추당 박호병의 '산수도 10폭 병풍'과 우당 조중태의 '화조도 8폭 병풍'이다.

교육 활동에 전념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아울러 전 이형록 필 '책가도 병풍'도 전시됐다. 이형록은 조선후기의 화원화가로 고창군 무장(戊長)에서 태어났다. 이형록은 1864년 이응록으로 개명했는데, 이번에 전시된 작품의 좌측 두 번째 폭에 그려진 인장에는 '이응록인(李應祿印)'이라 쓰여 있어 이형록의 개명 후 이름이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홍진근 관장은 "이번 교체 전시를 통해 이정직의 서예작품뿐만 아니라, 채용신의 초상화, 박호병과 조중태로 이어지는 산수·화조도 등 조선 말부터 근대까지 전북 예술의 흐름을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박물관에 방문해 아름다운 서화작품을 감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 '제5회 인문주간' 릴레이 인문학 강연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줄 릴레이 인문학 강연을 펼친다. 시는 2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제5회 인문주간 개막식을 갖고, '비대면 시대의 문화의 힘과 위로'를 주제로 개막특강을 열었다.

이날 28일까지를 제5회 인문주간으로 정한 시는 시민들이 인문학을 쉽게 접하고, 인문학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고전번역원 등에서 총 19개의 인문학 강좌 및 세미나를 선보이게 된다.

이날 열린 개막특강에서는 소설 '전 개의 파랑' 저자인 천선란 작가와 함께 '비대면 시대 문화의 힘과 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는 배옥영 고전전문가와 김만권 정치철학자가 참여해 각각 '삶의 지혜, 장자'와 '한나 아렌트와 근대의 악'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28일부터 28일까지는 하루에 4~5개의 인문학 강연이 이어진다. '순자 사상 읽기', '맹자·논어·고문진보 강독', '노자 도덕경 담론' 등과 내대주 시인 특강, 파리문학 여행, 사회심리학으로 세상 읽기, 고병권 선생의 북토크 등이 준비됐다.

인문특강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주시 평생학습관(063-281-536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부안예술회관, 악기체험 음악극 공연

부안예술회관은 악기체험 음악극 '키즈&뮤직'을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에 대해 잘 모르고 들어보지 못해 어렵고 지루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아이들에게 클래식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한 것으로 단순히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닌 체험형 음악극 형식으로 악기를 체험하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MC 배지봉의 진행과 사단법인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바탕으로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온 가족이 공연에 몰입해 만족할 수 있는 공연으로 대표 프로그램으로 생생의 동물의사육제를 비롯해 애니메이션음악, 동요 등 다양한 작품을 연주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대박물관, '동행' 기획전

첫 전시 델로스 작가 '구름곰 나라의 엘리스'

전북대 박물관(관장 홍진근)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작품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 '동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대학문화 예술공간 공유 일환으로 전시실을 개방 및 공유해 대학과 지역사회에 문화 예술 공간 공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전시다.

전북대박물관은 '동행'의 첫 번째 전시로 '타로나라의 엘리스와 구름곰'을 주제로 일러스트 작가 델로스(Delos)의 작품을 선보인다. '구름곰 나라의 엘리스'라는 주제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전북대 박물관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파란 하늘에 두둥실 떠 있는 몽계구름을 보다가 꿈틀이처럼 생긴 구름을 보고 '구름곰'을 만든 작가 델로스의 특별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엘리스와 이상한 나라의 흰토끼, 체셔고양이, 모자장수, 카드 병정 등이 그가 만든 '구름곰'과 함께 특별한



아트웍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 전시에는 델로스 작가와 졸업을 앞둔 전북대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전공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특별 작품과 함께 라보(@_larvo), 미튼(@mitten_minio), 손지영(@dressydoll), 전병택(@ponbyungtaek)을 포함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콜라보레이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경기전서 역사문화 콘텐츠 만나요”

전주시, 10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주말과 휴일 전주한옥마을에 가면 다양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한옥마을을 경기전에서 ▲왕과의 산책 ▲경기전 사람들 ▲수복청 상설공연 등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대표적인 야간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왕과의 산책'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한다. 태조, 태종, 세종, 세조, 광해군, 정조 등 조선을 대표하는 임금 6명의 역할을 맡은 전문 배우로부터 살아 있는 역사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국악공연도 즐길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된다. 참가비는 1만 원으로, 육선, 11번가, 예스24에서 예매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공작소(063-232-9338)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전 사람들'의 경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 2차례 진행된다. 지역의 전문 예술가들이 ▲팽쟁이(관상가) ▲어진화사(화공) ▲까막눈(우생) ▲참봉 ▲판부지(지관) ▲말뚝이(수문장) ▲유사갓(이단아) ▲한입만(기미상궁) ▲금화군(금화)으로 분장해 생생한 조선의 역사를 들려준다.

총 26회로 마련된 '수복청 상설공연'은 매주 토·일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단막극 '갈겨나



다른 이야기'로 펼쳐진다. 판소리 다섯 바탕 중 춘향가와 흥보가, 심청가 등을 재치 있고 유쾌한 대목만을 엄선해 새롭고 독특하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전주만의 전통 창극 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

시는 행사장 내 참여인원 제한 및 사전예약제,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행사장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기전을 대표하는 행사인 만큼 청년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한데 모여 코로나19 시대에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문화유산의 가치와 특성을 살린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침체된 한옥마을 경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